

2019년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워크숍
모두를 위한 미술관-예술과 건강, 치매

국립현대미술관은 주한영국문화원과 공동주최로 <2019년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워크숍>을 개최합니다. 올해는 '모두를 위한 미술관-예술과 건강, 치매'를 주제로 치매환자의 예술경험에 대한 한국과 영국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개요

- 사업명: 2019년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워크숍
- 주 제: 모두를 위한 미술관-예술과 건강, 치매
- 일 시: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13:00-16:30
- 장 소: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디지털정보실 라운지 달 DAL
- 대 상: 미술관·박물관 실무자 및 관련분야 연구자 등
- 신청방법: 아래 링크 접속 홈페이지 사전신청 (선착순 마감)
- * 사전신청 링크 <https://forms.gle/N9tbYKRqyU18aqJr7>
- * 홈페이지 사전신청자 예정 인원 초과 시 현장접수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문 의: 교육문화과 홍해지 (02-3701-9605)

□ 세부내용 및 강연자 소개

○ 국내 치매환자 현황과 예술경험의 중요성

_이찬녕 (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, 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)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.

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을 자문하고 있다. 미술관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하고, 미술을 전혀 모르는 치매 환자도 일상의 기억을 더듬어 자신 만의 작품과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.

○ 예술경험을 통한 치매환자 뇌의 변화 *순차통역

_세바스찬 크러치 (영국 UCL 신경학연구소 치매연구센터 전문연구원)

세바스찬 크러치는 초기 치매와 관련, 특히 알츠하이머 질병에서 '시각적 변형'이라고 불리는 후두피질위층증(PCA)에 집중하고 있다. 이 연구는 치매와 관련된 시각적 장애 및 이례적인 알츠하이머 질병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.

□ 유의사항

-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아카이브를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.
(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홈페이지, SNS 등 국립현대미술관 홍보채널과 미술관 DID, 인쇄물 등에 사용됩니다.)
- 사전신청자 중 교육 시작 후 10분 (13:10)까지 미등록하신 분들은 자동 불참 처리되며 현장신청자에게 양도됩니다.
- 강연자의 저작권 존중과 다른 참여자 배려를 위해 강의 중 녹음, 촬영 등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